

## 일본 교육의 문제와 전망 - 어린이 등교거부를 중심으로 -

후지사키 이끄코(藤岐育子)\*

- I. 서 언
- II. 등교거부 현상
- III. 등교거부와 사회인식
- IV. 등교거부하는 어린이들
- V. 등교거부 학생들과의 만남
- VI. 등교거부에 대한 행정의 대응
- VII. 적응지도교실이 안고 있는 문제
- VIII. 민간연구소 카이젠쥬쿠의 실천사례
- IX. 등교거부가 가르쳐주는 미래의 교훈

### I. 서 언

일본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교내폭력, 이지메(남을 괴롭히는 행위), 그리고 등교거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문부성은 '학교가 싫다'는 이유로 연간 50일 이상 결석한 초·중학생들을 등교거부 아동이라고 행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등교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가지가 있

지만, 학업부진, 이지메 등의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불신감 등 학교생활 관계, 그밖에 가정생활 관계, 그리고 병으로 인한 결석,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원인이라 하지 않고 제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왜, 그 어린이가 등교거부를 시작했는지, 성인의 입장에서는 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상 초·중학교에 있는 등교거부 아동수는 약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간 1개월 정도 결석하는 등교거부 예비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진실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 등교거부 아동이, 학교를 거부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본 학교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앞으로 일본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등교거부의 배경에는 대입경쟁, 학력사회, 소자녀화 현상 등 일본의 사회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한국에서도 앞으로 등교거부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 마츠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 연구원

만약 일본과 같은 등교거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일본의 교육문제를 생각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 학생의 학교환경, 가정환경을 등교거부라는 관점에 놓고 한·일간의 비교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여기서는 일본의 등교거부 문제의 현상과 등교거부아동을 학교에 복귀시키는 실천적인 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II. 등교거부 현상

올해 8월 11일 대부분의 석간신문이 1면 기사로 등교거부 아동 77,000명이라고 보도했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 1966년에는 국민학교 4,430명, 중학교 12,286명이었던 등교거부아동이 16년 후인 1982년에 초·중학교 합해서 20,000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매년 증가하여 1991년에 30,000명, 1993년에 60,000명, 올해는 70,0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등교거부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12,3년 전에는 일본 중학교에서 교내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그 무렵(1982)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비행, 가정내 폭력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등교거부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교사들은 생각지도 못했다.

예를 들면, 사이타마(埼玉)현(인구 661만명) 오오미야(大宮)시(인구 43만명)에는 현재 등교거부아가 약 300명 정도 있다. 심지어 등교거부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실정에 있다.

또한 등교거부 경향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 와

도 교실에 가지 않고 하루의 대부분을 양호실에서 보내는 것을 양호실 등교라고 하는데, 공립 국민학교의 7%, 공립 중학교의 23%가 이런 학생들을 가지고 있다.

## III. 등교거부와 사회인식

당초 등교거부는 학교공포증이라고 해서 신경증(노이로제) 정신장애가 원인이 되어 장기결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신의학, 임상심리학적으로 고찰, 대처되어 왔다. 사회에 적응력이 부족하고 등교거부 상태가 되기 쉬운 성격의 특정한 학생이 보이는 행동, 또한 일종의 정신병 초기증상이라고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고, 주로 가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회에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등교거부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본인과 그 가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등교거부는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1989년 7월에 드디어 문부성은 학교부적응대책 조사연구 협력자회의를 발족시키고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심의를 거듭했다. 다음 해 중간보고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등교거부는 특정한 학생에게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보통의 어린이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등교거부는 가정에서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문제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 중간보고는 종래의 기본인식을 뒤엎는 것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구체적 대응책으로는 시정촌(市町村)의 교육위원회가 문부성의 위탁을 받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카운셀링, 집단활동, 교과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적응지도교실을 개설하여, 등교거부 아동이 서서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시설

에서 상담, 지도를 받을 경우 이를 학교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1992년 8월의 조사에 따르면, 등교거부 아동을 받는 민간시설은 전국에 약 300개소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등교거부가 보통 어린이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었지만, 반대로 등교거부의 원인은 학교에 있으니 가기 싫은 학교에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나타났다.

등교거부 아동을 학교문제의 피해자처럼 보도하는 매스컴과, 학교제도를 부정하는 민간시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아동의 등교거부 행위를 인정하는 부모도 나타났다. 과거에 등교거부가 신경증, 정신적 문제로 인식되었을 때에도 교사와 부모는 학교등교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모의 허가를 받고 당당하게 등교거부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문제는 민간교육 시설을 계속 다녀도 졸업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행 학교에는 문제도 많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기술이나 예술적인 재능이 없다면 중학교만 졸업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그것은 결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혼자서 배우고, 자신있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집단생활 속에서 인내심과 협동정신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교육상황을 되돌아 보면, 전체사회는 많이 변화했는데 교실, 교과서 중심의 교과학습 등 학교세계만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거부하려고 하는 학교실상을 잘 살필으로써 앞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상적인 학교의 미래 모습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IV. 등교거부하는 어린이들

전에 한국에서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등교거부에 대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었다. 그때 왜 양호실 등교같은 것을 인정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신력이 약한 학생들일수록 더욱 엄하게 대하면 등교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왜 어린이가 등교거부를 시작했는지 교사,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요즘의 등교거부 문제는 학생 본인이 왜 등교거부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 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등교거부의 계기로 급식, 수영수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된다거나, 수영시간에 친구가 너 털이 많다라고 놀린 것을 계기로 학교에 가기 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학교에 못가는 학생을 볼 때 정신력이 약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계기이지 원인은 아니다. 즉 어린이가 학교를 결석하고 집에서 지내봤더니 너무 마음이 편했다거나 틀에 박힌 학교생활보다 평일에 집에서 지내는 편안함에 맞을 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에는 아무래도 학교에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에 갈 생각을 했더니 친구들이 왜 지금까지 학교에 오지 않았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지 몰라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또 수업중에 교사의 지명을 받고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등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학교에 못가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상적인 아동이라도 대

인공포충 노이로제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보통 아동이 등교거부(결석)를 계기로 생각지도 못했던 정신상태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원래 신경질적인 아동의 경우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 신경질 문제는 지금 일본인 전체를 해치고 있다고 말한다.

아사삼(아침에 머리감기 ; 아사+삼푸의 약어)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일시 유행했는데, 이것은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으면 학교, 회사에 못간다는 의미이다. 머리냄새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사회현상을 고려해 볼 때 사소한 일에도 영향을 받기 쉬운 학생이 작은 일에 마음에 걸려서 불안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에게 이런 행동을 조장하는 것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과잉보호이다. 어린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 속에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해준다. 자식을 일류학교에 진학시켜려는 욕심에서 어린이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집안일을 도우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집밖으로 나가면 보호해주는 부모는 없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니까 실수한 경험도 별로 없다. 경험이 없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엄격하지 않은 부친의 모친화의 영향도 크다고 본다.

학교에서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배우는 것을 원한다. 반 학생 모두의 개성을 살리면서 반의 조화를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다. 반드시 낙오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썩은 굴이 하나 있으면 다른 굴도 다 썩어버린다는 속담이 있다. 교사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반드시 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괴롭히는 것을 시작한다. 그리고 등교거부아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교실에서 낙오자가 한명 나타나면, 다른 어린이들은 그 한 사람 덕분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자신의 밑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교거부의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소자녀화, 학력사회, 부모와 교사의 교육능력의 저하, 엄격한 규율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인내력의 약화현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전의 등교거부는 주로 도시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요즘에는 농어촌의 문화가 붕괴되고 도시문화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에 등교거부의 발생율이 지방이나 도시나 별 차이가 없다.

## V. 등교거부 학생들과의 만남

필자가 등교거부 문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민간 교육연구소인 카이젠쥬쿠(開善塾)의 카나자와 준조(金澤純三) 선생과의 만남때문이었다. 그에게서 대인공포증에 걸려있는 21살의 남자가 있는데 좀 만나주겠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그 남자는 정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필자가 정치에 관련된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원자력발전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유명한 여대를 나온 영어, 불어에 능통한 인텔리였으며 누나는 명문 대학원에 재학중인 우수한 학생이었다. 아버지가 프랑스 등지에서 단기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게도 알제리에서 국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 일본에 돌아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1때 학교를 그만두고 계속 집에만 있었다. 17세부터 20세까지 하는 일도 없이 집에만 있다가 부모가 고민끝에 카나자와 선생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그

당시에 그가 왜 등교거부증세를 보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3년간 집에만 있다가 대인공포증에 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집에만 계속 있어서인지 얼굴이 하얗고 어딘가 생기가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걸프 전쟁에 대해서, 일본의 정당에 대해서, 또 중동의 평화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었다. 몇번 만난 사이에 내가 그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이 정치, 사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내가 대답을 해도 다시 정치문제로 급방 화제가 바뀐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대인공포증을 극복하고 등교거부 학생들의 모임에 참가하면서 문제가 나타났다. 그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대화하지 못했다. 항상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남들이 조금이라도 놀리면 그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없었다. 그가 필자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성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은 시기였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그 후 그는 방송대학에 입학하고 선택과목 복지에서는 노인 홈에 가서 불런티어활동까지 했다.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지금은 면허증을 타려고 자동차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는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등교거부를 계기로 공백이 되어버린 17~21세까지의 지나버린 시간이 너무도 아깝게만 느껴진다.

심각한 등교거부 학생에게 등교거부 원인을 알기 위해 가정방문을 시작했다. 특이한 예를 하나 들자면, 중2 남학생이 이지메를 당하여 등교거부 상태에 빠지게 되어, 그때부터 만화책을 들고 다니며 인사할 때나 차를 탈 때나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만화책으로 얼굴을 가려 세계로부터 자신을 차단

하는 것이었다. 지금 그는 교사, 부모의 노력 덕분에 모자는 깊이 눌러쓰지만 만화책은 버리게 되었다.

다른 사례로서 중2 여학생의 예를 들면, 그녀는 가정방문때마다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면서 도망가기 일쑤였다. 겨울에 추워도 방에 있는 스토브도 켜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방에만 있었는데, 정신적으로는 같은 또래보다 성숙했지만 그로 인해 학교의 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그 후 1년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대인공포증에 걸렸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돈이 들지 않게 불도 켜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로 인해 그녀의 두 동생까지 등교거부증에 걸려 등교를 하지 않다가 카운셀링을 통해 지금은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녀의 등교거부증은 아직 완전히 치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담임교사가 집으로 방문하면 이야기를 나눌 정도까지는 호전되었다.

## VI. 등교거부에 대한 행정의 대응

지금까지 등교거부의 사례를 설명했는데 일본의 교육행정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민간에서는 어떠한 시도가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에는 적응지도교실이라고 불리는 등교거부 아동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다. 그 수는 1995년 5월 현재 전국 478개소에 이르러 1990년의 83개소에서 무려 대여섯배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응지도교실(이하 교실)은 등교거부 아동에 대한 지도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시립교육연구소와 같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 설치한 시설, 또는 학교의 여유교실 등을 이용하여 교내에 설치한 시설로서, 해당 학생의 재적교와 협력하면서 개별

상담, 집단활동, 교과지도등을 행하고 있다. 현재 문부성은 연구위탁사업으로서 93개소의 적응지도 교실에 연간 1억 2,899만엔의 원조를 행하고 있다. 그 이외의 교실은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이 28개소, 시정촌립(市町村立)이 450개소로 되어 있다.

〈표 1〉 적응지도교실 설치수 (단위 : 개소)

1990	1992	1993	1994	1995
84	186	293	384	478

교실에서의 통학대상자는 초·중학생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중학생이다. 교실은 한 연구소에 하나씩 있고 중학 1년에서 3년까지의 혼합학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수, 시간배정, 수업 시작, 종료 시간 등은 교실에 따라 다양하다( 학

생수는 4~5명 정도의 소규모에서 15명정도 되는 곳도 있다).

시간배정에 관해서는 참고삼아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립교육센터내에 있는 적응지도교실 마츠가제(まつ風) 학급의 한 주간의 예정을 제시한다. 마츠가제의 마츠는 일본어에서 소나무(松)와 기다린다(まつ)는 두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명칭은 학교에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적응지도교실이라는 명칭에 위화감을 느끼는 지도자도 많아서 이런 명칭을 붙여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시간배정은 스포츠와 공작, 컴퓨터, 게임, 그룹 카운셀링 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자습하는 시간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짜여져 있는 곳이 많다. 이밖에 보다 깊은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캠프, 스키교실 등을 개설하는 곳도 있다.

〈표 2〉 마츠가제 학급의 시간표

되돌아 보자, 자신의 생활								
9 : 00	10 : 00	11 : 00	12 : 00	13 : 05	14 : 00	14 : 45		
27일 (월)	등 교 · 아 침 자 습	조 회	학급회의 시간 - 주계획의 확인 - 주목표 설정 - 새소식	창작시간  음악상자 만들기	점 심 시 간 · 청 소	개인과제 활동시간	개인과제 활동시간	귀 가 모 임
28일 (화)			감상시간 유복민의 노래	운동시간 매드민턴		개인과제 활동시간	개인과제 활동시간	
29일 (수)			친교시간 지도장기	음악시간 합주 시바의 여왕		개인과제 활동시간	개인과제 활동시간	
30일 (목)			컴퓨터 시간 워드프로세서	자유시간		개인과제 활동시간	그룹미팅 일주간의 반성	
1일 (금)			연수회 관계로 쉽니다					

적응지도교실에의 입실은 교육상담원에 의한 상담과 가정방문 상담을 거쳐서 행해진다. 교실에서의 지도자는 규모가 작은 교실에서는 교직원직자가 많고, 도시부로 갈수록 연령층이 다양해져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이하 지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근보다 비상근이 많아서 교실의 학생들은 매일 다른 지도원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

시설면에서도 도시부에서는 학습실, 놀이방, 상담실과 같은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많고, 지방의 소규모의 교실은 학습실, 상담실을 겸하고 있는 곳도 많아서 지방과 도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위에서 설명한 실태는 1994년도에 행해진 71교실의 조사결과이다. 전국 적응지도교실의 약 1/3이 전국 적응교실연맹에 가입해 있기는 하지만, 일본 전국의 현상은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다음에 설명할 문제는 어느 교실이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 VII. 적응지도교실이 안고 있는 문제

적응지도교실은 원래 등교거부 학생이 다시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학교와 가정 사이에 있는 중간시설로서 197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되었다. 장기간 결석한 학생들을 일단 학교로 돌려보내기 전에 집단생활을 시켜서 원만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에 따라서는 오랜기간 집안에서의 칩거생활에서 교실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복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친구를 사귀어 즐겁게 생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지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학교복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지도원보다 젊은 지도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상근의 지도원이 많기 때문에 자주 지도원이 바뀐다는 문제는 있지만, 교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친밀한 지도가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실은 마음놓고 지낼만한 장소가 된다. 또한 집이나 학교에 어디에도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실은 있을만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 그 결과 학교복귀를 권유했을 때 학생이 나는 학교대신 교실에 다니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라고 당당하게 반문하는 경우도 나타나곤 한다.

그래서 4개월, 1년 등으로 등교기간을 제한하는 교실도 있지만, 기한이 끝난 뒤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교실에 받아들여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도 많아서 심지어는 중학교 3년간을 적응지도교실에서 보내는 학생도 있다.

느슨하게 짜여진 수업일정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학력에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특히 중3이 되면 진로지도의 문제 등으로 등교거부 학생들은 시련을 맞게 된다. 그런데 진로지도의 단계에서 그 학생에 대한 책임을 과연 지도원이 떠맡아야 하는가,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담임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도원이 열심히 지도하면 할수록 학교측은 그 학생이 자기들의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지도원도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교실의 본래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입장이 얼마나 어정쩡한 것인가를 자각하게 된다. 중간시설의 애매한 성격이 여기서 선명하게 문제로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등교거부의 초기단계에는 담임교사도 학생의 복귀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교과담임제 때문에 국민학교와 같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 결석이 오랜동안 계속되면 일상적인 업무에 파묻혀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다가 학생이 교육상담을 거쳐 적응지도교실에 다니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지도교실로 직접 찾아와서 학생을 만나는 교사는 드물다. 그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학생과 담임의 관계가 악화되어 버린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일본 교사 사이에 켈러티맨 의식이 만연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단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응지도교실의 지도원과 재적교의 담임은 학생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상 적응지도교실의 문제를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간시설이 불필요한가 하면 그렇다고 간단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들에게는 괴로워하는 부모가 있는 집에 있기도 싫고 그렇다고 달리 갈 곳이 없다. 어린이의 등교거부문제가 가정의 붕괴로 연결되는 심각한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반대로 가정붕괴때문에 등교거부를 시작한 경우도 있다) 일시적인 수용시설로서의 중간시설의 역할도 부정할 수 없다.

단지 상당수의 교육상담원들이, 적응교실을 거치지 않고 학교의 담임과 양친, 그리고 상담기관이 유기적인 협력하에 가정방문을 하면서 학생의 학교복귀를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동 교육기관에 있어서 목적과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적응지도교실의 사례는 가르쳐주고 있다.

적응지도교실에서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의 진로를 보면, 고등학교(야간, 통신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에 진학하기는 해도 대부분이 중도에서 그만 두는 교실도 있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고교에 다니고 있다는 추적조사가 얻어진 교실도 있다. 적응교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사, 교육상담기관, 행정부 사이에서 많은 의론이 필요하다. 우선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머지 않아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하리라고 누구든지 예측하고 있다.

## VIII. 민간연구소 카이젠쥬쿠의 실천사례

적응지도교실이 반드시 등교거부 아동의 학교복귀에 성과를 거두는 것만은 아님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떤 시도가 행해지고 있을까? 민간시설에서 상담, 교과지도 등을 받는 경우에도 재적교의 출석일수에 계산되기 때문에 민간교육시설의 수요는 점차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설중에는 학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학교복귀를 지도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에서 민간시설로는 유일하게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등교거부 학생의 지도연수를 하고 있는 카이젠쥬쿠의 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카이젠쥬쿠라는 명칭은 군마(群馬)현에 있는 초·중·고를 병설한 인간성 교육을 중시하는 시로네카이젠(白根開善) 학교로부터 따온 것이다. 모든 어린이에게는 착한 구석이 있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자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담긴 명칭이다.

카이젠쥬쿠에서는 신경증 등교거부 아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정방문으로 아동의 마음을 열고, 뒤에는 같은 입장의 등교거부 아동들과의 교류와

자연 속에서의 합숙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칩거했던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그 아동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키나자와 선생의 경우 그 자신의 독특한 행동요법으로 그것을 달성해 낸다.

그 행동요법에 관해서는 이전에 한국에서도 저팬 포털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다. 행동요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고자 한다.

집으로부터 외출해서 타인과 만나게 된 아동들은, 다음으로 자연 속에서의 집단생활에 도전한다. 군마(群馬)현 만바(萬場)정(인구 3,000명)이라는 작은 산속마을에 있는 폐교가 된 국민학교를 이용하여 자취생활의 합숙을 행하는 것이다.

합숙기간은 주말 하루에서부터 2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합숙에서 특별한 행사는 따로 없다. 탁구를 치거나 독서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산책하거나 하고 싶은대로 지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가한 생활인 것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지나간다.

화덕에 불을 피우는 일, 드럼통으로 목욕탕 준비를 하는 일, 도시에 사는 학생으로서는 모두 처음 겪는 일이다. 화덕에 불을 피울 때도 성냥을 몇번이나 그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작업이지만, 이들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 수차례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 실수를 극복해 간다. 남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특히 두서워 하는 등교거부 학생들도 야외생활에서는 당당하게 실수를 할 수 있다.

냄비뚜껑이 열려있는 상태로 놓아두면 많은 벌레가 요리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를

실행한다. 드럼통 목욕탕은 깨끗하지는 않지만, 달빛 아래에서 어린이들이 목욕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벽증이 있는 학생들도 용기를 가지게 된다.

학생들이 고생하면서 스스로 만든 식사는 무엇이든지 맛이 있고, 그들도 아주 행복해 보인다. 적응지도교실에서도 식사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 먹는다든 일상적인 행동을 남들 앞에서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는 학생들은 무엇이든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극복해 나간다.

또 등교거부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한 선배가 후배들을 잘 돌보아준다.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친구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은 표면에 나타내지 않아도 좋다. 산의 생활은 스스로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서로 도와주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등교거부 학생들은 원래 남에게 매우 신경을 쓴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씨가 곱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교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등교거부아를 전에 등교거부를 했던 학생이 학교로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등교거부는 진심으로 학교에 가기 싫은 것이 아니고, 어떤 심리적·환경적인 원인이 겹쳐져서 못가게 되는 것이다. 학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편중교육과 학력사회에 대한 거부라고 말할 수 있다.

## IX. 등교거부가 가르쳐 주는 미래의 교훈

대지진이 있었던 코베(神戸)를 5월에 방문했을 때, 체육관, 교실 등이 피난소가 되어 있는 중학교를 견학했다. 그때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 지진 후 등교거부아들이 자

연스럽게 학교에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재해에서 살아남아서 복구작업에 참가한 등교거부아들은 자신을 회복하고 대인공포증을 극복했다. 학교에서도 단축된 수업중에 서로 협력하는 작업이 많았다. 그러나 9월이 되어서 정상수업을 시작했더니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지진을 극복하려고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된 시기는 좋았지만, 그 후 역시 학교 자체에 아무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말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의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코베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의 등교거부와 같은 문제는 한국에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한국 가출문제가 곧 일본의 등교거부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학력사회를 배경으로 경쟁과 점수화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생활에 어린 학생들은 지쳐있다.

아동들의 개성을 살리고 마음을 의탁할 만한 학교를 어른들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일본, 그리고 한국의 학교가 추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川野邊敏. 小林晃一(1990), [新任教師への手紙], きよせい.  
 \_\_\_\_\_, [續新任教師への手紙], きよせい.  
 きよせい(1993), [日本の教育], きよせい.  
 全國教育研究所聯盟, [だれもが身につけたい生徒指導. 學校教育相談の技法], きよせい.  
 谷昌恒(1977~), [ひとむれ(救護院の記録)] 第1~8集, 評論社.  
 河合春雄(1995), [臨床教育學入門], 岩波書店.  
 神谷美恵子(1982), [こころの旅], みすず書房.

土居建郎. 渡部昇一(1995), [いじめと妬み], PHP.  
 岸本進一(1995), [ノックアウトのその後で - 登校拒否少年の話], 理論社.  
 水谷啓二(1968), [三田療法入門], 白揚社  
 森口秀志(1991), [世界の教育], 三一書房  
 生徒指導研究(1994), “學校不適應問題に對する適應指導教室の全國實態調査”, [生徒指導研究]